

정신질환자 위한 직업체험공간 가동

전주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제적 자립·취업 활동 지원 '꿈꾸는 연습장' 운영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전주지역 정신질환자를 위한 직업체험 전용공간이 운영된다.

전주시와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보영)는 회복지원공간인 '첫마중'(덕진구 백제대로 787, 2층) 내에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체험공간인 '꿈꾸는 연습장'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꿈꾸는 연습장'은 정신질환자의 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 현장과 동일한 환경이 조성돼 현장 중심의 취업 실무를 연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현재는 편의점 업무와 조리

(외식/서빙) 업무, 행정사무 업무 체험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편의점 업무 체험공간은 GS리테일의 지원을 받아 편의점과 동일하게 구성됐으며, 현장감 있는 직업체험 공간을 통해 직업 이해도 향상 및 실무 중심의 취업 연습이 가능하게 됐다.

시는 올 하반기에는 '꿈꾸는 연습장'에 카페(바리스타)와 의류매장 체험공간도 추가할 예정으로, 정신질환자들이 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해 개인별 적성을 발견하고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공간별 직업 체험과정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기로 했다.

또한 시는 취업 정보와 구직서비스

안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업무 협력을 통한 정신장애인 맞춤형 취업 훈련과정 참여와 취업 연계도 계획하고 있다.

직업체험공간 편의점 구성에 참여한 김재화 GS리테일 지역팀장은 "GS25는 지역사회의 소외 계층에게 작은 나눔을 실천하고자 GS나눔이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전주시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에 협력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GS25는 시민과 함께 상생 발전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회복지원공간 '첫마중'이 청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

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영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직업체험공간을 통해 정신질환자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해 일상을 회복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센터는 지역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의 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직업체험공간 '꿈꾸는 연습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전주시 거주 정신질환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63-273-699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은경 기자



덕진경찰서, 스마트 분석 활용 상반기 치안종합성과보고회

전주덕진경찰서에서 2023년 상반기 치안종합성과 향상 방안에 대한 보고회가 20일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보고회는 김태형 전주덕진경찰서장과 각 과장, 계·팀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22년도 치안성과와 다른 추진사항을 되짚어 봤으며, 앞으로의 주민 치안만족도 향상을 관련해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주민 치안대책으로 각 부서별 2023년도의 성과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 및 가능별 협력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이번 보고회에서는 기업 등이 경영전략을 수립할 때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등으로 주위 환경을 분석한 뒤 전략을 도출해내는 분석방법인 '스마트 분석(SWOT Analysis)'을 활용했다.

따라서 더욱 전략적이며 전문적인 보고회 방식이 전개됐다.

김태형 경찰서장은 "치안성과 향상에 여러 방안들을 마련해줘 감사하다. 논의된 계획대로 적극 추진해 주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덕진경찰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치욕적 한일정상회담 규탄한다" 6·15공동선언실천전북본부와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북민중행동,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들이 20일 전주풍남문화광장에서 '치욕적 한일정상회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덕진소방서, 소방훈련·교육 지원센터 연중 운영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1·2·3급)에 대한 소방훈련·교육이 강화됨에 따라 관계인의 체계적인 소방훈련·교육과 자체적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훈련 및 교육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제정·시행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에 따라 모든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1·2·3급)의 관계인은 근무자 등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부를 통해 2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됐다.

특히, 특급과 1급 특정소방대상물은 훈련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서를 작성해 소방서(현장대응단)로 제출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역시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전주덕진소방서는 자체 소방훈련·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1·2·3급)의 관계인에게 소방훈련·교육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훈련설계를 지원하고 자기 주도적인 소방훈련·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소방훈련·교육 지원센터의 주요 운영·지원 내용으로는 대상물 위험 특

성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 컨설팅, 소화·통보·피난 등 중점요소 포함 훈련 설계 검토·지도, 필요시 소방차량·장비의 체계적 지원 등이다.

소방서에서는 지난 3월 초 소방훈련·교육 지원센터 운영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운영 안내문을 대상물 관계인에게 발송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소방안전대상물 관계인은 전주덕진소방서 현장대응단(063-250-4254) 또는 관할 119안전센터에 방문해 우선으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결과 관리를 위한 서식은 전주덕진소방서 홈페이지(https://deokjin.sobang.kr/)를 통해 내려 받기가 가능하다.

김현철 전주덕진소방서장은 "화재 초기 소방력이 도착하기 전 관계인의 효과적인 초기 대응은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로 이어진다"며 "관계인의 화재 초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소방훈련·교육을 지원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이람 기자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환급

전주시 완산구, 23일부터 최대 40만원

지난해 말 종료된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지방세특별제한법'이 공포·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말 종료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별제한법' 개정 지연으로 올 1월부터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된 '지방세특별제한법'의 시행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이 2024년 12월 31로 연장됐고, 그동안 입법 공백에 의해 감면 받지 못했던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자에게도 개정 지연에 따른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특례 혜택을 2023년 1월 1일부터 소급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완산구는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하이브리드 차량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감면받지 못한 납세자에게 최대 금액 40만 원을 오는 23일부터 납세자의 별다른 감면신청 없이 직권으로 환급하게 됐다.

완산구는 신속한 취득세 환급을 위해 대상자들에게 개인별 환급금액을 안내하고 지급받을 계좌로 신고해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지난 10일 발송했다.

이번 소급적용을 통해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완산구 내 납세자 수는 총 287명으로 환급금 총액은 1억1200여만 원에 이르며, 완산구는 오는 3월 31일까지 대상자 전원에게 환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염익준 완산구청장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환급대상자는 환급액이 초기에 환급될 수 있도록 지급받을 계좌를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 지방세관련법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주민 숙원사업 신속 해결 '앞장'

전주시, 화전동 신정마을 농로 포장·농수로 정비 완료

취임 후 연일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우범기 전주시장이 영농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데 앞장섰다.

전주시는 올해 3000만 원을 긴급 투입해 덕진구 화전동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경강에서 화전동 신정마을을 잇는 농로 포장 및 농수로 정비를 모두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우범기 시장이 지난 1월 화전동 애골마을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화전동 신정마을에서 만경강 제방을 잇는 농로가 없고 주변 배수로가 정비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직접 청취하고 조속한 처리를 약속한 때 따른 것이다.

실제로 화전동 신정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만경강 제방도로에서 마을로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 농번기 농기계 운행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나 통행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농로 개설 및 수로 정비를 신속히 처리했다.

시는 이번 농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농로를 이용할 수 있어 안전사고 위험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이록 기자

덕진경찰서,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시

학교폭력에 따른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한 예방활동이 본격화 된다.

전주덕진경찰서(총경 김태형)는 학교폭력에 따른 피해로부터 부모님들의 올바른 대처법에 대한 교육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 17일 여성청소년계 학교담당팀은 전주우아중학교 설명회에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괴롭힘, 언어폭력' 등 사이버 폭력 사례를 들어가며 누구나 무의식중에 가·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학교폭력에 따른 피해로부터 부모님들의 올바른 대처법에 대한 교육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이날 최근 청소년 미아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변종 룬카페에서 성행위 발생 소지가 큰 만큼 성폭력·미아범죄 예방교육도 병행해 실시했다. /김영태 기자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봄의 세' 품오름게 찬란하게

GOCHANG BLOSSOM FESTIVAL

사랑인가, 봄 고창 벚꽃축제

3.31.☉▶4.2.☉(3일간)
개막식 4.1.☉ 19:00
석정지구(고창읍 석정2로 171)일원

고창군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